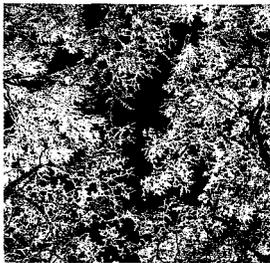


# Contents

등급정보 365\* \_ 2009 December Vol.160

- 02 \_ **칼럼**  
축산업의 경쟁력은 브랜드이다
- 04 \_ **기획특집**  
2009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시상식
- 06 \_ **전문가 심층정보**  
분만 모돈 '하이터치 서비스'로  
PSY 25두 달성
- 08 \_ **농가탐방 - 소**  
지속적 고급육 생산이 곧 경쟁력  
조차환 농장-조차환 대표
- 10 \_ **등급정보 - 소**
- 15 \_ **등급정보 - 돼지**
- 18 \_ **등급정보 - 닭고기**
- 19 \_ **등급정보 - 계란**
- 20 \_ **축산상식**  
저온기 농장 관리법
- 21 \_ **쇠고기 이력제 / 지역축산소식**
- 23 \_ **등급판정소식 - 본부**



'눈꽃하늘'

제주지역본부 과장 정기환작

## 칼럼



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소시모)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위원장

정규용

# 축산업의 경쟁력은 브랜드이다!

Ⓢ 국내 축산업계는 한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타결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2004년부터 시작한 축산물브랜드 사업이며 그 일환으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의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한우, 육우, 양돈, 계육부문의 인증브랜드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위생·안전성에 불신과 둔갑판매에 따른 신뢰저하 등은 수시로 공중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소비감소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축

산물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종자부터 시작하여 생산, 도축·가공,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생산한 브랜드이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를 규합하고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브랜드육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들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축산물브랜드를 매년 인증하고 있다.

금년에도 66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1년간 브랜드별 3회의 실사를 통하여 우수한 브랜드 53개를 선정하여 12월 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이는 '08년 축산물브랜드 640여개 기준으로 볼 때 8% 정도만이 소비자로부터 인증 제도를 통해 검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아직도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증된 축산물 브랜드가 대형 유통망에 접목되어, 유통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브랜드 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관심과 지원은 지방의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축산물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 향상을 위해 축산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브랜드별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에 우수한 브랜드를 선정·인증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따라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증브랜드 수를 늘려나 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국가들 간에 FTA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는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고 오래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지원이 부족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이 수입축산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한 경쟁시대에 국민들로부터의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밑천으로 세계를 향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 외부 필자 위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